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면역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아름답도다 주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롬10:15)

오늘 농촌전도단 파송식

농촌전도단이 오늘 찬양예배 시 파송식을 갖고 본격적인 전도활동에 돌입한다.

전도단은 8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3박 4일간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소재 금산 마장교회에서 전도활동을 펴게 된다.

전도단은 축조전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개최 등으로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며 저녁에는 동네잔치와 전도집회도 열 예정이다. 또한 지역봉사와 의료 및 미용 등 주민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편다.

농촌전도단은 지도 이성득 목사, 진행 정윤돈 목사, 고경선 목사, 정대일 전도사, 조대영 전도사, 정성국 전도사 등 교역자를 선두로 전도분과, 의료봉사분과, 미용봉사분과, 교육분과(성경학교 진행), 재정분과, 찬양분과, 취사분과 등으로 조직되어 분과별로 활동하게 된다.

농촌전도단은 지난 몇주간 전도훈련과 기도회 등을 통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새로이 하고 전도활동을 준비했다.

특히 지난 6일(금) 올해 파송될 농촌전도대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3차 농촌전도대 교육 및 기도회를 가졌다.

전도대장인 최중시 장로의 기도로 시작한 이 자리에서 이종윤 목사는 특강을 통해 농촌

의 현실과 도시교회의 책임 및 농촌전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구체적인 전도방법과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이상호 집사의 상황보고 및 각 분과장의 보고를 통해 전도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을 마쳤다. 그리고 이성득 목사의 개인전도 강의와 전도대원들의 합심기도로 전도자의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성도들은 전도단 활동을 위해 물질과 기도로 협력하고 있다. 사무국에는 전도단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

▶금산 마장교회 =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925번지 ☎0412-753-3730에 위치하고 있다.

교인은 현재 장년 20명에 주일학교 어린이 10명 등 총 30명이 출석하고 있다. 199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1996년에 예배당을 신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렸다. 올해 4월 김명복 전도사가 부임해 시무하고 있다.

인근주민은 174세대 420명이다. 그중 80%가 50대 이상의 노년층으로 생업은 농업에 의존하고 있다. 마장리는 여느 농촌과 같이 유

교적 사상과 사마니즘 풍습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곳인데 김명복 전도사와 20명의 성도들이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전도하며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금산 마장교회는 100교회 운동의 일환으로 한나 제 1전도회와 결연했다.

농촌전도단을 위한 기도

- 1.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주민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전도활동이 되게 하옵소서.
- 2. 악한 세력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 3. 금산 마장교회 위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생동감 있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 4. 전도대원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하게 하옵소서.
- 5. 농촌 전도대원들의 활동을 마친 이후에 오직 하나님의 존귀하심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 6. 복음 전파 사업에 온 교회가 기도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이규정 목사 청빙



우리 교회는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이규정 목사를 부목사로 청빙했다.

이규정 목사는 1964년 생으로 최은실 사모와의 사이에 3남이 있다.

▲ 이규정 목사 대구 계명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장로

회신학대학 신대원을 졸업했다. 1998년 10월 목사 안수를 받았으며 속초중앙교회에서 시무했다.

이 목사는 새가정부와 9, 10, 11, 12교구를 지도하게 된다.

8월 학습·세례식

8월 학습·세례식이 18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이에 앞서 학습자 교육은 8일(주일), 세례자 교육은 15일(주일)에 2층 예배실에서 각각 있다. 이에 마침하신 성도는 16일(월)추가 교

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세례자 문답은 17일(화)에 있다.

문의는 새가족부로 하면 된다.

다락방 모임 8월 중 방학

우리 교회는 방학과 휴가 기간이자 무더위로 인해 가정에서 모이기가 힘든 8월 한달 간 다락방 모임은 쉬기로 했다.

교구위원회에서는 다락방장들에게 전화 심방을 통해 다락방 식구들을 돌봐 볼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사야 강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이사야 25장 9 - 12절

'그 날'은 메시아가 오시는 날, 약속이 성취되는 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며 복음의 날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그 날이 오면 구원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뢰(신뢰)하라"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4절)는 말은 여호와를 믿고 그에게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먼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능동하시므로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그 위에 더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는 노래를 계속 불러야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은 구원을 성벽으로 삼으셨다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 (1절).

하나님은 앗수르의 강한 군사 보다 더 강하시고 견고한 요새 보다 더 견고하시며 가장 무서운 병기 보다 더 무서운 병기이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시므로 앗수르를 무서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군사는 산헤립 군사에 의해서 파괴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외적 구원의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지혜와 모사의 신을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를 안전하게 구출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 중에서 특히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지혜와 선하신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안과 밖에서 구원하십니다.

'견고한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을 말합니다.

2. 누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갈까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

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2절)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 문을 말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 문을 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결코

고 평강하도록'의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평강과 외적인 평강을 말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평강(peace with God)과 하나님의 평강(peace of God)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4절).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바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이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다" (사 26:1 - 4)



이종운 목사

세상의 안목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와 같이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들어와야 구원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성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3. 주님을 신뢰하는 이에게 주시는 복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4절).

'하나님'은 창조주를 가리킬 때, '여호와'는 구원주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주 여호와'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구속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주 여호와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다시 말해서 마음의 뿌리가 깊은 자를 평강으로 지키십니다.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시 112:8).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

라보아야 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는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반석이심이다" (4절).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삶과 인격을 세우는 사람은 견고한 심지를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는 영원한 반석, 다시 말해서 영생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며 계명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피의 복음을 변색시키지 말고 바로 믿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확신을 가지고 철저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점일획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름수련회를 마치고(청년부)

다윗, 베드로, 바울을 통해 다시 발견한 나

김대형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다윗과 베드로를 통해 나의 골리앗과 주 안에서 내 정체성을 보여주시심을 감사합니다. 또 바울을 통해 내게 끈질기게 붙어 있는 교만의 영을 보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풀린 것을 보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둘째로 더 이상 아프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능과 사랑의 하나님인 내 아버지께서 제 몸이 낮기 원하시고 또 낮게 하셨으니 이미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단이 내게 더 이상 "너는 아프다"고 속삭이지 못하게 주님이 내 몸의 주인되심을 고백합니다.

세번째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워보일지라도 순간순간 성령이 의지하여 나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보아 시간과 물질을 나누겠습니다.

네번째 다름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과 하나된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루도 말씀에 붙잡히지 않고 살 수 없으니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기다리시고 훈련시키시는 주님 앞에서 내 일상적인 삶을 통해 온전한 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은혜에 관한 두 가지

김민철

이번 수련회에서 두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기도의 분량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다. 청년부 회원들은 7월 한 달 동안 수련회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했다. 2주 전부터는 연속기도회와 금식 릴레이를 했다. 그렇게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한 앞으로의 모든 수련회 아니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한 만큼 주실 은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가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했다는 것. 단지 그렇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어두운 눈과 믿음 없음과 불만과 공연한 죄의 쓴뿌리로부터의 억눌림 때문이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정확히 세밀히 지적해 주시고 우리의 회개와 결단을 요구하셨다.

사단이 나를, 나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회의에 빠져 들게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요 주의 종이요 영적인 거장임을 확실히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도 앞에서

이미경

수련회 중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년의 때, 많은 비전을 받은 반면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은 수련회 기간 중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고.

우리 앞길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고통이 따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계획하셨기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 통해 바다에서 파도타기를 통해 저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존귀하심 앞에서 제가 얼마나 작음을 뒤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파도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제 손을 꼭잡아 주실 때 무서운 파도타기가 즐거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파도타기를 통해 거친 세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를 놓치지 않으시고 손을 꼭잡고 앞길에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서 제게 보여 주신 길을 꾀대를 향해 달려갈 것입니다.

선한 소원을 주사..

권오현

출발 당일까지도 참석을 망설이는 날 위해 누군가 나의 회비를 감당하면서까지 수련회를 보내려 한 회원들이 있었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결심! 그리고 출발.

문화선교에 관해 주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과 결혼, 이 두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이번 수련회에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이동 중인 버스 속에서 빌립보서를 읽었다.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굳었던 내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찬양, 기도, 말씀을 듣는 마음과 여러 회원을 보는 눈까지... 내가 변화되는 것을 느꼈다. 정말 몇년만에 느껴보는 것이었고 내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거였다는 느낌이었다.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가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세상에 묻혀 제대로 숨도 못쉬고 살았던 것이다. 나의 게으름, 나의 죄

들... 그것들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훈련들을 더 늦어지도록 했음과 그에 대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내게 고난으로 오게 되었음을 알았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게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비하도록 하신 것을 기도도 예비도 하지 않았던 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싶다.

이제부터 수련회입니다

손지희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로 불러주시고 지금도 당신의 원하시는 형상에 이르기까지 훈련시키심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불평도 원망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속사정이 가슴을 찢는 고통의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를 사랑하시고 사용하시며 또 나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 달라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해 달라는 것과 비전을 회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수련회에 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내게 주셨음을 선포하게 하였고 내가 부르짖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졌습니다.

이제부터 수련회로 살겠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하루 하루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양육하실 것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은혜로 다른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나누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결단코 이거리

유태서

어둡고 막막한 나의 앞길에 많은 췌정과 낙심으로 날을 지새다가 이번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의 모든 강의와 말씀은 나의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어 내 마음을 찢리게 했다.

<4면에 계속>

순례길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집에 왔어요

오영숙(집사, 4교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 주신 우리 딸 지혜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 절로 눈물이 난다.

98년 5월에 아들이 군에 입대한 후 우리 가족은 알 수 없는 허전함에 힘들어 하며 몇 달을 보냈다. 그러던 중 작년 8월에 뜻밖의 천사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다. 지혜를 입양하게 된 것이다.

남편(최창화 성도)은 종종 딸을 한 번 키워 봤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지혜가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소원하던 대로 얼마간 딸아 키우게 될 기회가 생겼다. 지혜를 보살피다 보니 정이 들어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우리는 흔쾌히 지혜를 호적에 올렸다.

그후로 우리 가정은 놀랍게 변해갔다. 아들이 입대한 후 조용하던 집안 분위기가 지혜로 인해 활기가 넘치고 밝아졌다. 퇴근시간이 빨라진 남편은 지혜를 얼러가며 함박웃음을 웃곤한다. 지혜 덕분에 우리 집은 모빌이며 온갖 장난감으로 놀이방과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나도 교회학교 유아부의 학부모가 되었다. 지난 5월 유아부 주최로 있었던

학부모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종윤 목사님의 특강을 들을 때 우리 지혜가 아니었다면 이런 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다.

지난 6월엔 우리 지혜가 유아세례도 받았다. 내 마음엔 지혜가 주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지만 기도의 어머니로 그렇게 많은 기도의 분량을 채워 지혜를 키울 수 있을지 염려스러울 뿐이다.

올해는 어린 지혜를 돌보느라 그간 하던 식당봉사, 헌금위원, 소망부 봉사를 못하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주일엔 유아부에 우리 지혜의 교육을 일임하고 나도 다시 힘껏 교회봉사를 하려 한다.

남자마자 데려온 터라 내 배만 안아팠지 지혜에 대한 우리 가족의 사랑은 어느 부부 못지 않다.

이제 지혜는 엄마 아빠를 부르고 짹짹도 하며 재롱을 피운다. 우유를 먹기 전에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릴 줄도 알고 잠자기 전에도 기도로 잠자리에 드는 예쁜 습관이 들었다.

바람이 있다면 혹여 지혜가 사춘기가 되었을 때 자신의 일에 대해, 그리고 환경으로 인



지난 6월엔 우리 딸 지혜가 유아세례도 받았다. 해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간절한 바람은 지혜가 어서 커서 지금은 교회 나오기를 쑥스러워하는 아빠의 손목을 꼭잡고 하나님의 교회로 기쁘게 나오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낯선 얼굴과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고 들었다. 나는 사랑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국내 입양을 많이 하여 예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사랑하는 내 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혜가 밝고 맑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두 손 모아 기도드린다.

<3면에서 계속>

그러나 둘째날이 저물도록 나의 입에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터지지 않았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으나 공허한 외침이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진정으로 11년 만에 눈물의 회개를 할 수 있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을 한 몸에 느낀 것이다.

이제 나는 선포한다. 더 이상 죄악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승리했다.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영적 가나안에서 나는 사단과 정면충부를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코 이기고 말리라.

항상 감사하며 살리라. 나의 순간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기회임을 깨달았기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리라. 기쁨으로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9일(월) 도미 뉴욕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텍사스 기독교교도소를 방문시찰 후 14일(토) 귀국한다.
- * 박귀환 목사는 충남 온양동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케 되어 8월 1일자로 사임했다.

- * 김원웅·김규희집사(6교구)는 남부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했다(☎ 0348-959-6277).
- * 이번 주 식사는 김중운·김혜영 집사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가브리엘찬양대는 9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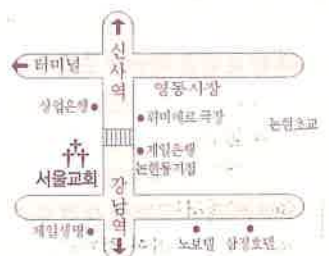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충남 금산에 파송될 농어촌전도대와 민족복음화를 위해
2.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3. 기독교교도소 설립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